

# “산수동에 맛과 멋 넘치는 ‘광주의 경리단길’ 만들겠다”

## 3차 광주폴리 ‘콧폴리’ 참여 작가 장진우씨 인터뷰

서울 ‘장진우 거리’ 만든 셰프  
중학교 퇴학후 국악·사진 전공  
여수 ‘1923식당’ 컨설팅도  
“지역청년 10여명 선발·교육  
광주에 식당 오픈·운영 지원”



“광주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오히려 특색있는 음식 찾기가 더 어렵네요.”

지난 31일 오전 만난 광주폴리Ⅲ ‘콧폴리’ 참여작가 장진우(30)씨는 광주 대표 음식을 꼽는 게 힘들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지난 29일 식당손님과 주인으로 만나 1년간 열에 끝에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 그는 신혼여행도 뒤로 미루고 광주를 방문했다. 장씨는 광주 동구 산수동 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 인근에 ‘콧폴리’를 설치해 도심공동화지역을 활성화 시킬 생각이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경리단길을 만든 주인공이기에 지역에서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가 ‘광주폴리Ⅲ’ 참여작가로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이 퍼지자 애초 폴리 후보지로 꼽혔던 곳은 땅 값이 상승하기도 했다.

“처음엔 ‘폴리’에 좋지 않은 인식이 있었어요. 달랑 뭉개만 만들어놓고 아무도 신경을 안쓰는 모습이 누구를 위한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불만만 갖는 것보다 차라리 직접 바꿔보라고 생각했어요.”

외식사업가, 공간디자이너, 장진우회사 대표 등 장씨를 수식하는 말은 많지만 원래는 조그만 식당 주인에서 시작했다.

그는 지난 2011년 황량했던 경리단길에 ‘장진우 식당’을 열며 ‘대박’을 쳤다. 간판도 없는 10평(33㎡) 남짓한 공간에 8명이 앉으면 딱치는 테이블 달랑 한개. 주방도 따로 없어 손님들 바로 옆에서 요리를 한다. 메뉴판도 없다. 손님들은 정해진 식단을 먹을 뿐이다. 어느 식당과는 다른 모습이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한달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앉을 수도 없다.

“저는 항상 맛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어요. 중학교 때 배운 요리하는 게 맛있게 보여서 열심히 써왔죠. 그러다 패싸움 때문에 퇴학을 당했어요. 친구들과 저까지 세명 중 한명은 학교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친구들이 답답한 거예요. 웃긴건 그 친구들이 지금 변호사 등으로 성공했어요. 어느날은 국악이 멋있어서 국악고에 진학했고 대학까지 갔죠. 대학 때는 포토그래퍼가 멋있었어요. 그래서 사진학과를 복수전공하고 광고일을 하기도 했죠. 어느날은 서재가 꼭 갖고 싶더라고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35만원짜리 방을 구해 서재를 만들었어요. 주변 친구들을 불러 서재에서 밥을 해준 게 ‘장진우 식당’ 시작이죠. 지금은 지역에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씨는 ‘장진우 식당’을 바탕으로 ‘스핀들마켓’, ‘마틸다’, ‘방범포차’, ‘문오리’ 등 특색있는 가게를 열어 성공시켰다. 경리단길 뒷골목은 장씨 덕분에 맛과 멋을 아는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지금의 거리로 발전했다. 경리단길 뒷골목이 ‘장진우 거리’로 불리는 이유다.

외식업으로 크게 성공을 했지만 막상 그는 조리사 자격증이 없다. 너무 따기 쉬워서 일부러 안했다고 한다.

“꼭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외국 유명 요리학교를 나온 요리사가 요리를 잘한다고 할 수 없어요.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레시피를 사용하는데 안 맛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창의적인 요리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죠. 외국 식당에서는 때리면서까지 가르쳐요. 현장에서 배우는 경험과 기술이 더 크죠. 날씨에 따라 어떤 요리를 먹어야 하고 어떤 음악을 틀어야 하는지는 쉽게 배울 수 없죠.” 장씨도 독하게 교육해 사람을 키우기로 소문났다. 장씨는 ‘장진우 식당’ 사례처럼 지역 청년 약 10명을 직접 교육해 외식업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장진우 셰프가 운영하고 있는 ‘장진우 식당’ <장진우 식당 페이스북>

를 운영하게 할 예정이다.

포항 출신이지만 광주에 애정이 깊다. 국악예술고등학교(피리전공), 중앙대학교 국악관련학과를 졸업하며 광주지역에 친구들이 많고 여러번 놀러왔다. 인터뷰 하기 전날에도 친구들과 어울려 광주공원 포장마차를 찾았다고 한다.

“저는 포항 출신이에요. ‘지역감정’ 그런 말은 모르는데 광주폴리가 실패하면 더 욕을 먹을 것 같아요. 꼭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죠.” 여수 한정식 식당 ‘여수 1923’도 그의 아이디어다. 콘셉트, 메뉴 선정을 담당했다. 식당에서는 지역 모던걸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동정정식, 서정정식, 섬 정식으로 나눠서 대표 음식을 한자리 맛볼 수 있게 했다.

그는 식당에서 (맛있게 먹었다는)경험을 팔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식당을 쉽게 이용해서도 안된다. 비싼 값에 예약도 어렵고 찾기도 어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님이 간신히 얻은 테이블에 음식과 함께 좋은 음악과 분위기를 제공해야 더욱 기억에 남는다는 생각이다.

그는 최근 장진우 식당에서 매주 한번씩 인근에 거주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불러 같이 점심을 먹는다. 다들 주변 건물 주인이거나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이다. 이 자리에서 건물 임대료를 올리지는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경리단길 젠트리피케이션(구도심이 변형해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막고 있다.

“문화콘텐츠 사업을 10단계로 나눈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7~8단계부터 시작해 빠른 결과물만 원하고 있어요. 지역 노인들과 나누는 따뜻한 밥한끼가 임대료 상승을 막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당장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서서히 기초부터 다져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끝으로 청년들에게도 한마디 잊지 않았다. “요즘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일을 걸 걱정하고 있어요. 두려움 게 뭐가 있었어요. 일단 무조건 시도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술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로 일주일만에 식당(방범포차)을 만들어 성공시킨 그의 조언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서원길 작 ‘행복’

## 무등그래픽서화오늘전시회 회원전 3일~15일 자미갤러리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무등그래픽서화오늘전시회(회장 김지영)가 3일부터 15일까지 자미갤러리에서 19번째 정기회원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지영 회장을 비롯해 강명순·김영자·김용률·노영현·박근수·박순덕·박순영·서원길·임영호·장복자·정기문·정기석·정원석씨 등 회원 14명이 참여한다. 죽곡 박인혁 선생과 노의웅 전 호남대 교수도 작품을 전출출품했다.

회원들은 이번 전시 작품 판매금 일부를 독거노인들에게 사용해 예술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전시에서는 다양한 그래픽 디자인 예술을 만날 수 있다.

김지영 회장은 빨간 눈이 인상적인 작품 ‘白虎’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입체적으로 작업한 ‘마태복음’을 출품한다.

서원길씨는 ‘한지에 느낌표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서화에 디자인을 입힌 ‘그림읽기’, ‘행복’ 등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062-523-091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 포스터 공개...예술의 가능성 형상화

2016 광주비엔날레(9월2일~11월6일) 포스터가 공개됐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올해 비엔날레 행사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홍보할 시그니처와 포스터를 포함한 EIP(Event Identity Program)를 발표했다.

이번 EIP는 역동성, 움직임, 다각적, 다차원을 키워드로 개발됐다. 방향성, 발전, 흐름, 변화하는 움직임, 목표를 향한

전진 등을 의미하는 화살표를 통해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공식 포스터는 절제된 색과 워드마크를 자유롭게 배치해 예술 역동성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표현하면서 올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글씨와 화살표가 자유로이 떠다니는 지면은 주제 ‘제8기후대’(상상의 세계)를 의미한다. /김용희기자 kimyh@



#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6년 6월호

5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당신의 무대,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가까 출렁대는 토요일의 문화난장  
“특별해야 축제다” 도시마다 매력 찾기  
전당 문화벨트에 생기, 청년예술에 희망을

**기획** 이난영 탄생 100주년 ‘목포의 눈물’ 히로인 조명하는 기념사업 활발

**소문난 예술교육 환경을 찾아서** 문화적 포만감 선사하는 세종예술아카데미

**노충훈의 꿈의 여행** 시간의 조각칼이 새겨놓은 풍경 미국 유타

**전시 리뷰** ‘한지의 순수함으로 빛어낸 존재들의 풍경’ 소빈 조각전

2016광주세계콘텐츠페스티벌 추진위원장 김택환 9월에 ‘KIA’ 복귀하는 유격수 김선빈

## 남도 닮은 영화 거장 임권택

“영화가 녹아 인생 되고, 인생이 녹아 영화 되네요”

**남도의 장인들** 진다리보 전통 이으며 갈필·죽필 복원한 필장 문상호

**문학 화제** 맨부커상 수상한 작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 화제

**해외 문화** ‘나뭇잎 사립’ 통해 노형화 정체 극복한 일본 카미카츠마을

**정유성의 스포츠 인사이드** 외국인 선수 그들의 인기는 종종받고 있는가?

**문화 화제** 한창호의 사투리말 알력신디드 소쿠로프 <프랑코포니아>

**스타 데이트** “내가 사실 이런 사람인데, 실감하며 연기” tvN ‘디자이너인생’ 드센 임마 역할 고두심